

# 건축문화 RANG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8.7.104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 사랑

## 건축사협회 후원, '2018 광주·전남지방선거 당선자 교례회' 열려

지난 6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강현구 회장 참석, 건축 활성화 협조 당부

## 광주건축사회, 일본 JIA 후쿠오카회와 국제교류사업 협의 진행

지난 6월 15일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2019년 교류 20주년 기념사업 협의도

## 광주에서 건축 인·허가는 “시간과의 싸움”

광주시 5개 구청, 소규모 건축 인·허가 볼모로 시민들의 경제활동 저해

## 전남건축사회,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지난 6월 12일 법무법인 민 광주사무소에서... 자문변호사 위촉도 진행

## 전남건축사회,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7월 6일 전남건축사회 회의실에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과

## Editorial

### 광주다운 도시계획

#### 전남 나주지역건축사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 위한 업무협약체결

지난 6월 12일 나주시청에서 나주시, 나주시축산농업협동조합과 함께

#### 전북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원 간 단합 위한 친목 행사 진행

지난 6월 15일 회원 60여 명, 충남 서천 '봄의 마을' 등 건축탐방

#### 전주지역건축사회, 집중호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시공 중인 현장에서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협조 공문 보내

#### 전라북도, 민선 7기 첫 공모사업에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

올해 처음 시행된 주민 참여형 소규모 재생사업 8개소 선정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사업 설계공모

#### 인터뷰 \_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 2018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행인 및 편집위원 합동회의 개최

지난 6월 25일 광주 남구 임암동 식당에서... 신문 발행 관련사항 협의

세상사는 느낌

한여름 밤의 월드컵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원본  
PDF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 Editorial

### 광주다운 도시계획

최근 세계적으로 핫(hot)한 도시 중에 베를린  
이 등장하고 있다.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베를린시 도시계획청 방문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한때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이 지금의  
매력적인 모습으로 거듭난 것은 하드파워의 강  
요가 아닌 분단 현장의 문화적 가치, 자유의 상  
징같이 다른 도시에서 대체할 수 없는 '베를린  
만의 것'을 추구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시민들은 도시의 가치철학을 '여유  
로운 정신의 도시'에 두고 소프트 파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표현하는 베를린만의 문화를 만  
들어 가고 있었다.

이처럼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도시, 시대의 사  
명에 응답하는 도시는 부흥하겠지만 그렇지 않  
은 도시는 위기를 맞이한다고 할 수 있다. 더구  
나 우리는 인구감소, 저성장, 고령화 등 이제까  
지 겪어보지 못한 낯선 길을 걷고 있는데, 도로  
를 개설하거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하드웨  
어 도시계획만으로는 미래의 가치를 담기에 한  
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광주시는 '광  
주다운 도시계획'이 해답임을 알게 되었다. 광  
주다운 도시란 '앞서가는 대규모 도시를 뒤쫓  
는 것이 아니라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상품화, 브랜드화, 산업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과거의 전통적 도시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수용하고 포용하는 도시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요소와  
장단기적인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할 뿐 아  
니라 물리적이며 사회 및 경제계획이 입체적으  
로 짜여진 계획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데 과거에는 물리계획만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복합적인 현대 도시문제  
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포용 도시 철학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에서 성숙으로', '양적 공급에서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고 도시계획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도  
시를 디자인하는 건축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아파트의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건축물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여 광주에 오면  
건축물이 도시의 볼거리가 되었으면 한다.

셋째, 그간 치중한 하드웨어에서 벗어나 문  
화, 관광, 경제, 일자리 등과도 융합하는 소프트  
파워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소프트  
파워 도시계획을 통하여 광주시의 고유특성을  
살리며 정의로운 가치철학과 풍요로운 도시경  
관이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며  
실행하고 있다.

신재욱 사무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 버려진 땅, 선택된 풍경\_신창동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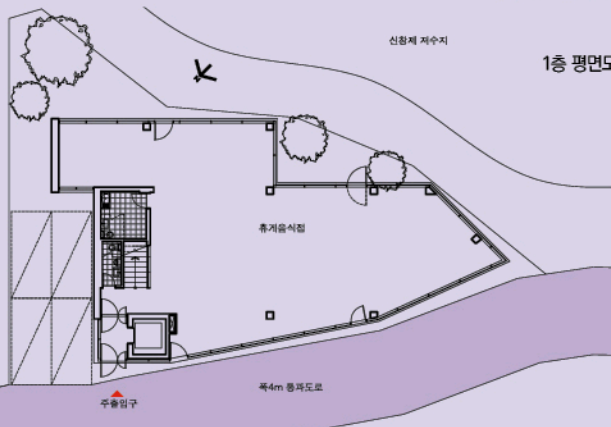
정명환 건축사 / (주)디에이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마북로 67  
Tel. 062-375-2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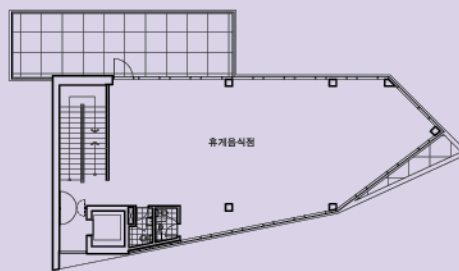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280-14 / 대지면적 : 383㎡ / 건축면적 : 225.90㎡ / 연면적 : 560.31㎡ / 건폐율 58.98% / 용적률 : 146.30%  
용도 : 휴게음식점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버려진 땅, 선택된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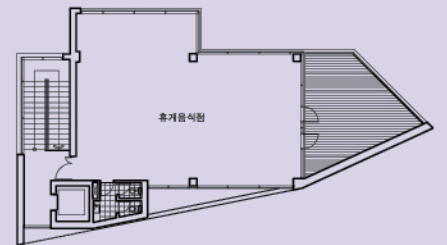
대지가 위치한 신창제 저수지 주변 땅은 도시가 성장, 변화하면서 큰 건물, 큰길에 밀려 작은 소로와 함께 뒷전이 되어 버린다. 한때는 농경지에 생명수를 공급하던 저수지는 점점 제 기능을 잃어가고 물은 고이기 시작한다. 논밭이었던 주변 땅은 고층 건물들로 채워지고 그곳에서 사람은 편리성에 젖어 생활한다. 도시 삶이 주는 빠름과 경쟁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인본에서 멀어지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에 대한 갈망은 건축주로 하여금 그 땅을 선택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설계자는 자연의 풍경을 차경하고 그대로 풍경이 되고자 한다. 다양한 외부 공간은 사람이 머물고, 시선이 머물며, 바람이 머무는 곳이 되고 싶다. 오늘도 그곳에선 사람들의 이야기, 새들의 노랫소리, 바람의 냄새가 우리를 웃음 짓게 한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건축사협회 후원, '2018 광주·전남지방선거 당선자 교례회' 열려

지난 6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강현구 회장 참석, 건축 활성화 협조 당부



전남일보사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가 후원하는 '2018 광주·전남지방선거 당선자 교례회'가 지난 6월 20일 광주 동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는 전남일보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과 교육감, 광역의원들을 비롯해 광주 서구갑과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상호 당선자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고 본격적인 지방 분권 시대에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교례회에는 당선자들과 함께 대한건축사협회 김기석 상근부회장과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이 참석했으며, 특히 강현구 회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전남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협조를 당부했다.

### 광주건축사회, 일본 JIA 후쿠오카회와 국제교류사업 협의 진행

지난 6월 15일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2019년 교류 2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도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6월 15일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JIA 후쿠오카회(회장 사사키 토시히사)와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광주건축사회는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안길전 국제위원장 등 9명이 참석했으며, JIA 후쿠

오카회에서는 사사키 토시히사 회장을 비롯한 다나카 야스히로 전임 회장 및 국제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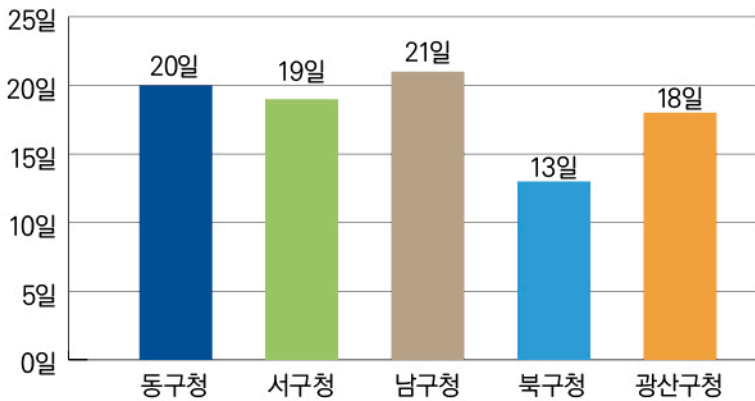
부산 해운대 건축 투어 및 만찬을 가진 후 본격적인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는데, 특히 2019년 교류 2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상호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공식적인 교류 이외에도 회원 간의 개인적인 교류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기획>

# 광주에서 건축 인·허가는 “시간과의 싸움”

- 광주시 5개 구청, 소규모 건축 인·허가 불모로 시민들의 경제활동 저해  
 - 전년도 소규모 건축 관련 구청별 인·허가 소요기간 조사 결과, 평균 최장 소요기간 21일로 나타나  
 - 구청별 최장·최단기간 평균 8일 차이도, 대부분 건축민원처리법정기간 지키지 못해

구청별 허가 소요 평균기간



광주시 5개 구청별로 소규모 건축 관련 인허가 소요기간이 최대 8일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2017년 기준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인 분리감리지정 건축물 519건을 대상으로 각 구청별 인·허가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북구를 제외한 대부분 구청이 건축민원처리법정기간 15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19건의 대상 건축물 중 90%에 달하는 468건에 대해 시민들의 허가신청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들로부터 허가신청일과 허가일을 회신받아 집계한 결과로 평균소요기간이 동구는 20일, 서구는 19일, 남구는 21일, 북구는 13일, 광산구는 18일로 구청별 최장·최단기간이 평균 8일까지 차이가 났다.

또한 용도별로도 단독주택에 대한 평균소요기간은 동구가 19일, 서구가 17일,

남구가 20일, 북구가 11일, 광산구가 15일로 나타났으며, 근린생활시설은 동구가 19일, 서구가 21일, 남구가 23일, 북구가 18일, 광산구가 23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건축사는 “허가 담당자가 대다수 기한을 다 허비한 후 보완요청을 한 경우가 많고, 특히 건축 관련 협의 부서가 담당 부서에게 회신을 늦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인·허가 기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말하며 “허가 관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기간 지연과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시민들의 경제 활동 등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대다수 시민들이 전 재산을 내놓고 건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시공사를 비롯한 설계·감리자와의 관계 등 모든 경제적, 정신적, 인적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반면에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지난 6월 초 서울 강남구의 경우 건축물 건립 전 건축 인·허가와 건립 후 사용승인(준공)민원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지연의 가장 큰 사유인 건축물 건립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을 줄였다. 이로 인해 건축 민원 처리 기간을 10일~15일에서 7일~10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도 7월부터 건축 인·허가처럼 여러 부서와 연계된 복합민원을 ‘원스톱 민원처리제’와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와 같은 시스템을 정착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광주건축사회는 “너무 답답해서, 건축과 관련한 시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속성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많은 분야에서 낙후되어 있는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사항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하반기 광주에서 개최되는 건축·도시문화제에 참석과 연말 일본 후쿠오카회 방문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협의했다.

## 광주건축사회, 2018년 하계 임원야유회 개최

지난 7월 6일 전남 해남군 일원 탐방... 사회 발전 방안 모색 및 협의도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7월 6일 전남 해남군 일원에서 ‘2018년 하계 임원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사회 임직원 및 역대 회장과 구협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해남군에 위치한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 건축물 답사와 함께 두륜산 전망

대 도보 답사 등을 진행하며 친목을 도모했으며 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발언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전임회장, 건설의 날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지난 6월 21일 진행된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건축사회 제15대 회장(2015년 4월 ~ 2018년 3월)을 역임한 정명철 건축사(주)에이엠지롭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6월 21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공간을 밝히는 건설’에서 ‘우리 삶을 밝히는 건설’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민의 Life Mark를 세웁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명철 건축사를 비롯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축사와 건설인 153명에 대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 것이다. 한편, ‘건설의 날’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김화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코모 / 광주 북구 일곡로 26, 1층 2호
- **전입**  
- 김정일 건축사 / (주)이에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648번길 143
- **변경(상호 & 소재지)**  
- 김혜윤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해창 / 광주 서구 상무대로 721, 4층

### 法家 공중임가 법무법인 법가

- 변리사
- 대한변협 이사, 청년특위 위원장
- 광주변호사회 총무이사
- 법정문화발전협의회 위원
- 광주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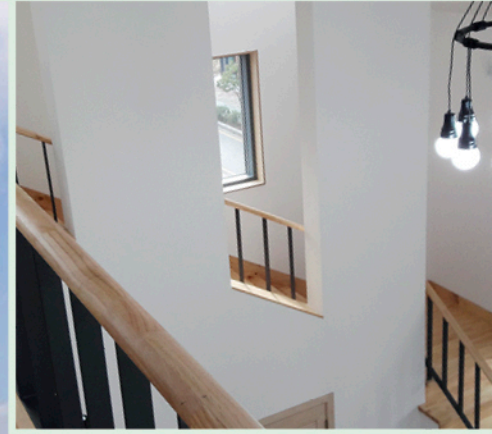
대표변호사

박철 / 朴哲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7(지산동)  
 T . 062-233-8070  
 F . 062-223-5376  
 M . 010-6678-1551  
 E . pcgranfa@hanmail.net  
 www.법가.com

## 남악리 1854

김정철 건축사 / AD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남악1로 56, 601호 Tel. 061-281-7848



대지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854번지 / 대지면적 : 211.60㎡ / 건축면적 : 119.30㎡ / 연면적 : 368.95㎡ / 건폐율 : 56.38% / 용적률 : 166.49%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 규모 :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스타코플렉스, 징크마감

### 전남건축사회,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지난 6월 12일 법무법인 민 광주사무소에서... 자문변호사 위촉도 진행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6월 12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민 광주사무소에서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무법인 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조연준 회장을 비롯하여 자문변호사로 위촉된 법무법인 민 박철 변호사와 양 기관 관계자 여러 명이 참석했으며,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협약서 날인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건축사 회원들은 법무법인 민 자문변호사로부터 무료법률 상담 및 수입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조연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협약을 통해 앞으로 회원사들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박철 자문변호사는 “전남 건축사 회원사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전남건축사회 법률 자문기관

- 업 체 명 : 법무법인 민 광주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1(2층)
- 자문변호사 : 박철 변호사
- 연 락 처 : 전화(062-229-1472) / 팩스(062-229-1473)  
/ 이메일: ms3371@nate.com
- 협약 내용 : 무료법률 상담 및 수입료 할인 등

### 전남건축사회,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7월 6일 전남건축사회 회의실에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과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가 오는 9월 개최되는 '2018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나섰다.

지난 7월 6일,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건축사회 회의실에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과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건축 관련 기관·단체·기업체 등의 홍보와 관람객 유치에 협력키

##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조연준 외 회원 300여 명

대표전화 : 061-285-7563~4 FAX : 061-285-7567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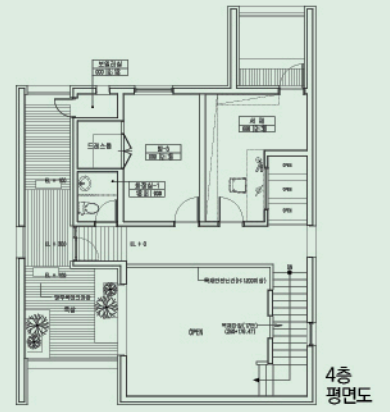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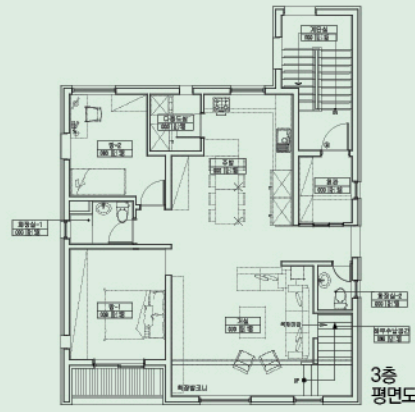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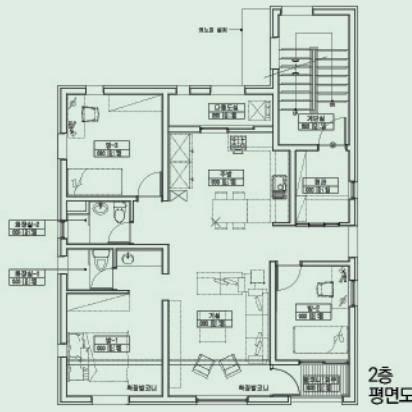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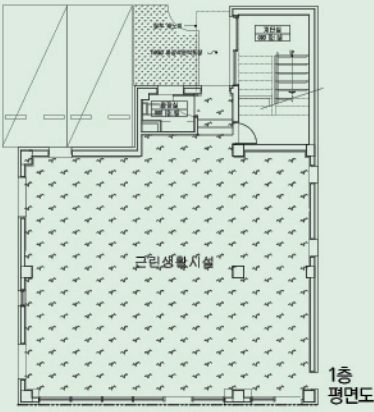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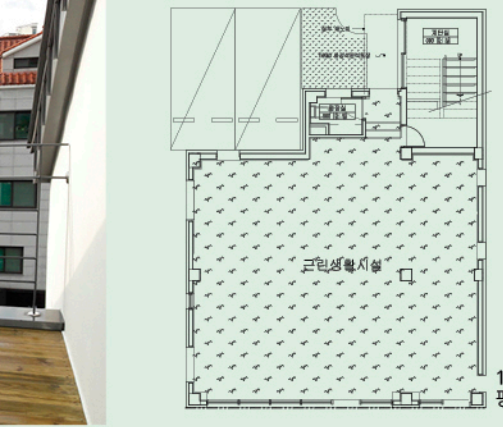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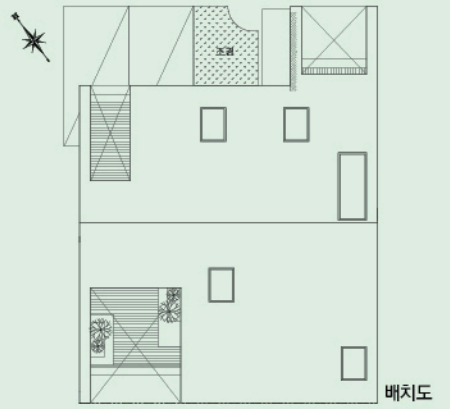
홈페이지 : <http://jnira.kira.or.kr>

## 이 곳의 전남업체 광고주를 모십니다.

- 광고금액 : 350,000원/월 1회(6개월 이상 광고 시 할인제공)
- 광고크기 : 가로 = 23.0cm, 세로 = 8.0cm
- 배 부 처 : 전남·광주·전북지역 건축사무소, 기업체 등 2,000여 곳
- 광고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회 TEL. 061-285-7563



계획부지는 오룡산과 영산호를 품에 안고 있는 북고남저 형태이며 행정 중심지 전라남도청이 소재한 남악 신도시에 위치한다.  
우리네 도시풍경인 고층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획일적인 다가구 모습이기에 전략적으로 심플하지만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면서 건축주의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전면 20m 도로와 후면 8m 접하여 1층 근린생활시설 내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방감 있게 배치하였으며 2층은 임대세대 3층 및 4층은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복층형 커뮤니티 동적 공간을 구성했으며 천장을 주어 밤하늘과 마주할 수 있게 하였으며, 4층 부분은 야외 테라스를 두어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며 가족 및 평생의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확보하였다.



로 했다.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전남에서 개최하는 국제적 행사인 만큼 회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도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제1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는 9월 1일부터 두 달간 전남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 250여 명의 수목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수목화 전시, 국제 레지던시, 국내외 학술대회, 각종 체험 이벤트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남 나주지역건축사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 위한 업무협약체결**  
지난 6월 12일 나주시청에서 나주시, 나주시축산농업협동조합과 함께



전남건축사회 나주지역건축사회(회장 최세호)는 지난 6월 12일 나주시청에서 나주시와 나주시축산농업협동조합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협약내용은 정부 정책 관련 제도개선 등 정책 건의와

적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공동사업 등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의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 대상 농가파악, 이행계획서 제출안내, 양성화 이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이행기간부여 등을 원활히 검토하여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순천시 2곳,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

2018년도 도시재생 소규모 공모사업에서 매곡동 그림책도서관 일원과 순천역 일원

전남 순천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도 도시재생 소규모 공모사업'에서 매곡동 그림책도서관 일원과 순천역 일원 2곳이 추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토부가 정한 쇠퇴총족도(인구감소, 사업체감소, 노후건축물 비율)를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역량 강화, 거점 공간조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뉴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8일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대면평가(6.21 ~ 22)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그림책도서관 주변 쇠퇴구역에 대해 그림책 특화 공간 조성, 마을 축제 개최, 돌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이 국토부 평가단의 관심을 끌었고, 순천역 주변 역세권 쇠퇴구역에는 트레블센터 조성, 영호남 청소년 축제 개최, 어르신 집수리단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이번 사업에

반영될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번 소규모 재생을 통해 국토부 도시재생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도심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의 4개 목표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2019년 뉴딜 공모에 본격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여수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시민대학' 개강**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광림동주민센터에서 진행... 시민 38명 참여



▲ 새마을사업이 추진 중인 여수 광림지구 모습

전남 여수시가 도시재생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12기 도시재생 시민대학 운영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 15일 광림동 주민센터 다목적실에 도시재생 시민대학 개강식을 갖고 7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동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광림동 주민 등 시민 38명으로 총 7회에 걸쳐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연구원과 함께 도시재생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시는 도시재생의 이해,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 등 강의부터 지역자산 현장조사·워크숍, 도시재생 프로그램 발굴·발표 등 실습으로 시민대학을 운영한다.

도시재생 시민대학은 도시재생 사업 발굴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2014년부터 운영돼왔다. 2014년 1기부터 2017년 11기까지 총 309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한편 새마을사업은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광림지구, 충무지구, 화양면 대옥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전남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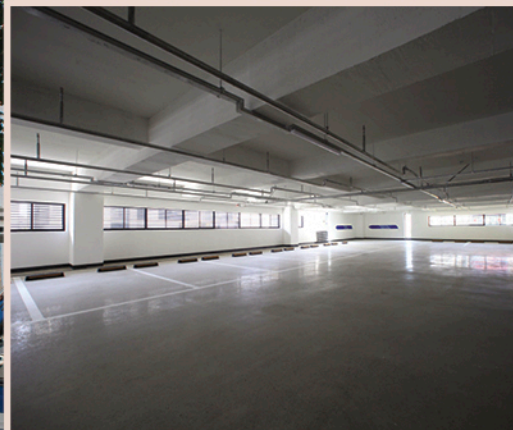
- 전입
  -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6, 509호
- 폐업
  - 장기태 건축사 / 대일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도원로 257
- 변경(소재지)
  - 문범준 건축사 / 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56-1, 1층 102호
- 부고
  - 손경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키펀 / 빙부상 - 06월 11일(월)

**화수분**

장종우 건축사 / (주)장인 건축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조촌안3길 12-5 Tel. 063-452-7012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27-7 / 대지면적 : 1,500㎡ / 건축면적 : 1,329.36㎡ / 연면적 : 4,140㎡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리시설 / 규모 :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전북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원 간 단합 위한 친목 행사 진행**

지난 6월 15일 회원 60여 명, 충남 서천 '봄의 마을' 등 건축탐방



전북건축사회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이태원)에서는 지난 6월 15일 회원 친목 행사의 일환으로 충남 서천에 소재한 '봄의 마을'과 '국립생태원'을 탐방하였다. 서천의 향토음식점에서 오찬을 곁들인 이번 행사에는 전주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하여 회원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알찬

행사로 진행됐다.

봄의 마을은 전통시장의 이전에 따른 공동화된 장소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의 광장에 5개 건물이 둘러싼 형태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재탄생하였고, 2012년 제6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수상한 건축물이다.

이태원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선후배를 비롯한 동료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지역건축사회, 집중호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시공 중인 현장에서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협조 공문 보내

전주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7월 2일 소속 회원들에게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시공 중

인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공 중인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재해 우려 지역 안전관리 및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며, 물이 고일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사전에 메우거나 충분히 확보하고, 비상용 배수펌프 확보 및 작동 유무 확인과 각종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유무 확인 등을 당부했다.

전주시지역건축사회 관계자는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시공 및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라북도, 민선 7기 첫 공모사업에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

올해 처음 시행된 주민 참여형 소규모 재생사업 8개소 선정

전북도는 민선 7기 들어 첫 번째 중앙공모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발표하고 참여하는 '18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이 8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도교통부에서 선정한 54개 사업 중에서 전주시 '천사길 사람들의 재미있는 마을공작소 운영' 사업과 무주군 '마을사랑방 노닥 노닥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 등 6개 시·군 8개 사업이 포함되어 국비 9.5억 원을 확보했다.

또 전체 국비 지원액 50억 원 중 19%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9개소 신청에 8개소가 선정되어 선정률 89%를 기록하기도 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

**전라북도건축사회**

**이 곳의 전북업체 광고주를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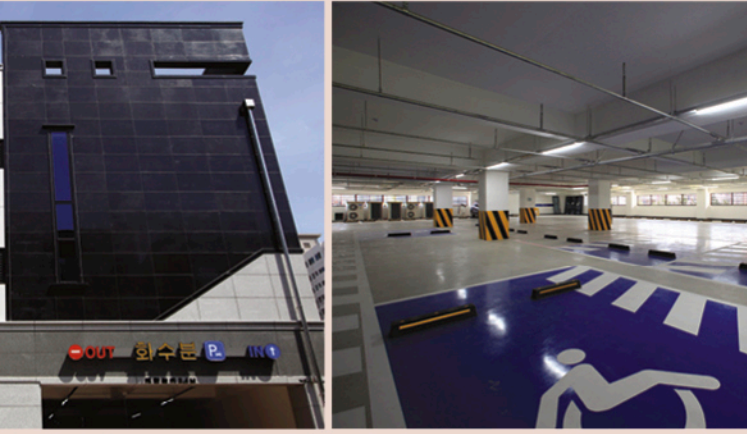
회장 이길환 외 회원 400여 명

대표전화 : 063-251-6040 FAX : 063-251-6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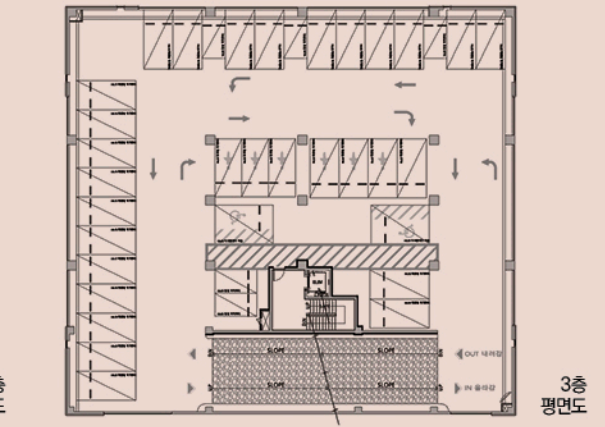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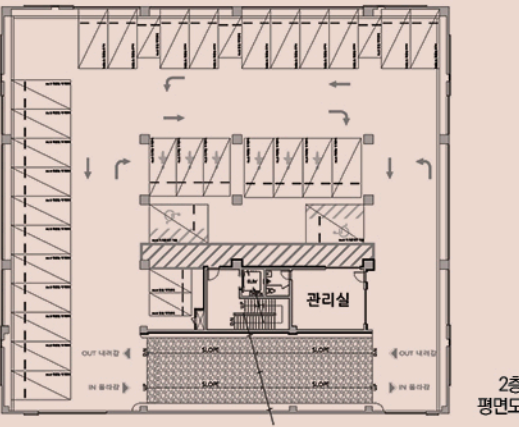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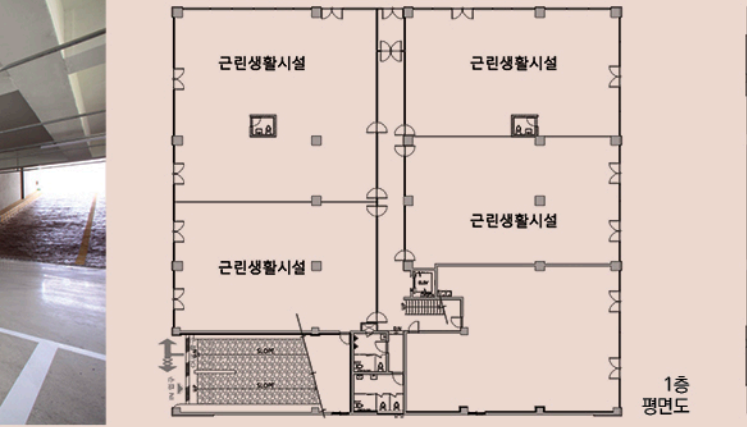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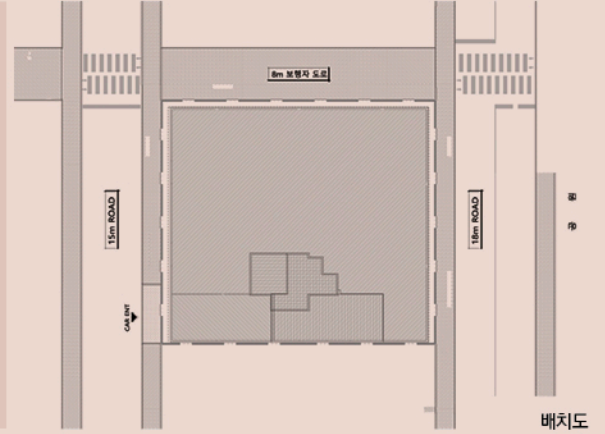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57(서신동) 건축사회관 6층

홈페이지 : <http://jbkira.kira.or.kr>

- 광고금액 : 350,000원/월 1회(6개월 이상 광고 시 할인제공)
- 광고크기 : 가로 = 23.0cm, 세로 = 8.0cm
- 배 부 처 : 전남·광주·전북지역 건축사무소, 기업체 등 2,000여 곳
- 광고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TEL. 063-251-6040



건물 명칭은 하수분(河水盆)이 변한말로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 즉,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담아 두면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다는 설화에서 비롯된 뜻으로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행운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건축주의 염원이 담겨있는 건물이다. 주용도가 주차장이지만 가볍고 단순한 느낌이 아닌 일반 상업시설물로 중후함을 표현해달라는 건축주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공모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인구, 산업, 주거)을 충족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10인 이상의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도서관 등 소규모 H/W 사업과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으로 사업별로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사·군비 매칭 50%)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해당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신청하였고,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 사업의 필요성, 적절성, 효과성을 적극 어필하여 서면평가와 주민 대표 발표평가를 거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6개소 선정되어 국비 68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전국 최다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에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전북 익산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실시 완료

지난 6월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 건축물 535개소에 대해...

전북 익산시는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이행을 유도하고 불법 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29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진행한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된 건축물 535개소다.

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조서의 적합 여부, 사용승인 이후 가구수와 세대수 불법증설 여부, 무단용도변경 여부, 대지 내 부설 주차장과 조경의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했으며, 중대한 불법사항의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시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사 감리자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실시한 건축사는 전라북도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 전북 김제시, 도시재생대학 상반기 기본과정 수료식 개최

지난 7월 6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6명의 수강생에 대해

전북 김제시는 지난 7월 6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8 김제시 도시재생대학 상반기 기본과정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도시재생에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주민 주도로 해결하고 도시재생의 방향을 주민 스스로 설정해 추진해 가는 과정으로 김제시는 상반기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회가 되었다.

교육과정은 개강식을 시작으로 총 8주간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의 개념과 이해, 마을현황분석, 방향설정 및 사업발굴, 발표대회 및 수료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수료식에는 26명의 기본과정 수강생이 모여 그간 발굴한 사업 발표 및 수료식을 가졌다. 김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대학의 기본과정과 하반기 심화 과정으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와 참여 의지를 모아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 정읍시, 오는 7월 13일 '도시재생시민포럼 2018' 개최

'미래를 위한 선택 - 시민경제도시' 주제, 오후 2시 정읍시립 중앙도서관에서



식되한 원도심을 살리고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이 열린다.

전북 정읍시와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전북과학대학교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시민포럼 2018'이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정읍시립 중앙도서관 1층 소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 주제는 '미래를 위한 선택 - 시민경제도시'이다. 포럼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다. 포럼의 좌장은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정철모 센터장이 맡는다. 주제 발표에서는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가 '도시재생에서 지방창생으로'를 공간문화센터 최정

한 대표가 '문화가 숨쉬는 도시', 아이부키 이광서 대표가 '맞춤형 사회주택을 통한 지역 자산화와 도시재생'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주제 발표자 외에도 전북과학대학교 김한수 산학협력단장이 참여하여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시재생의 목표와 정읍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갖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전북 회원동정

- **변경(사무소명)**
  - 박광성 건축사 / 바우하우스 건축사사무소 → 바우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김병수 건축사 / 강천 건축사사무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로 15
  - 안광은 건축사 / 하우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50
  - 배성기 건축사 / 기단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50
- **결혼**
  - 문경민 건축사 / 신도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06월 23일(토)
- **부고**
  - 김정두 건축사 / 두성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6월 11일(월)
  - 채준섭 건축사 / (유)보람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6월 18일(월)
  - 문경민 건축사 / 신도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7월 06일(금)
  - 조영수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장원 / 모친상 - 07월 10일(화)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사업 설계공모

본 설계공모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의 도심 속에 미디어아트 관련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여 과학과 예술, 산업의 융합 장르로서 예술발전과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한 건축물을 조성하는 데 있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 하고자 함.  
 심사위원 : 이승재(목원대), 윤현도(충남대), 신용주(조선대), 심재춘(광주대), 권제중(대구대), 주문기(초당대)  
 김태훈(목포대), 정성원(세종대), 김대영(부산대)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 리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 자료 미제출

### 당선작

양병범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 봉환성 건축사 리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박동준 건축사 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번지 외 1필지
- 연 면 적 : 11,000.00㎡(±5%이내)
- 대지면적 : 5,547.00㎡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층 수 : 지하 2층, 지상 3층
- 공 사 비 : 22,600백만 원



당신의 공사감리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감리자 필수앱!! 터치 완성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사진대지 스마트감리앱



PC로그인 [www.archim.kr](http://www.archim.kr) 콜센터 02 3462 1336  
 [문의] 이기상 건축사 (010) 8276 6158





# 광주건축사회를 ‘안전한 건축’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단체로 만들겠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본지에서 이번 7월호부터 9월호까지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순으로 회장 인터뷰를 진행하여 각 회장들의 취임 후 활동 사항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올해 3월 30일 취임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이하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호형 건축사사무소(주))으로 지난 7월 5일 광주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광주건축사회관 회장실에서 강동영 편집인과 박주현 광주지역 부편집인이 만났다.

## 광주건축사회장으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15일 제31회 정기총회에서 많은 회원 여러분의 지지 속에 제16대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공식적으로 3월 30일 취임식을 갖고 회장 직무에 돌입했습니다. 쓴 살같은 시간이 지나 벌써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의 건축업무 환경과 건축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를 잘 알고 있기에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는 회원 여러분들이 피부에 직접 와 닿으실 수 있도록 실행하는 단계의 출발점에서 있는 시점입니다.

## 회장 취임 전후로 개인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건축사회 이사과 감사를 역임하며 회장직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자신했으나, 실질적으로 직접 겪은 ‘회장’이라는 직함은 저의 양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특히 우리 340여 명의 회원들을 대변한다는 마음 가짐이 저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거나 때론 당당함으로 무장하게 했습니다. 언제 어느 자리를 가서는 행동거지 하나 하나에 회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단어 선택에 신중하게 되고, 어느 때는 회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에 의해 손해를 보거나 볼 것으로 예상이 되면 당당하게 개선요구를 피력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역대 회장님들께서도 그래왔듯이 이제야 조금씩 ‘회장’으로서의 고충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취임 후 100일간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요.

저는 지금까지 건축사님들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취임 후 고민하고 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전년도 전체 허가 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90%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과 구청장에 적극 건의하여 반드시 광주시민의 경제 활성화와 우리 회원들의 원활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우리 회원 여러분의 공공기관 입찰 업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경쟁입찰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건축사회 차원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개선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8일에는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사업법인과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우리 건축사들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수익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회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해 주도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최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는 관공서 심의위원회 참여건축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심의 시적법한 범위에서 회원들의 편익을 위해 대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도 조합원들의 편익을 위해 광주건축사신협 금융서비스 확대에 신속한 대출과 1인당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늘렸습니다. 이밖에 앞으로도 회원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선할 예정입니다.

## 공약 중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일들과 공약 외 추가로 추진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과 신규사업법인 및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



4월 9일 첫 공식업무로 이사회의 주재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강현구 회장은 지난 6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2018년 지방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에 참석하여 단체장들과의 교류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사진은 교례회에 참석한 이용선 광주광역시당선자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자, 광주서갑 송갑석 국회의원 당선자, 영암 무안·신안 서상석 국회의원 당선자, 임택 광주 동구청장 당선자,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당선자, 문인 북구청장 당선자, 김삼호 광산구청장 당선자, 전남 자지단체장 당선자,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

니다.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은 앞서 언급했듯이 작년 전체허가 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시장과 구청장에게 적극 개선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직접 민원을 넣어서 반드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우리 업무에 가해지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나하나씩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신규사업법인 및 협동조합 설립의 밑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조, 전기·통신·소방 등 외주용역업체의 용역비 과다청구, 늦장처리, 무응대 등의 횡포를 겪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업과 건축물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설비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등 신규사업법인을 통한 수익창출로 회원의 안정적인 사무소 운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회원의 경제적 단합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운영하여 경제적 수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축자재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사업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 분야를 건축물 생애주기관리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의 참여대상은 먼저 우리 광주건축사회 정회원들을 참여대상으로 하겠지만 추후 전남건축사회와 전북건축사회 회원들도 함께하는 구조로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건축 관련 보조 인력수급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스타트업 건축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고자 담당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력수급문제와 관련하여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건축실무교육 및 전산교육 등을 실시하여 회원사에 취업을 추천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이미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국비 교육 진행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축사들의 대외적인 위상과 업무에 대한 알리를 위해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한 홍보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외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앞서 언급했던 많은 부분들을 추진하고 실현하여 ‘건축사’와 ‘광주건축사회’를 존재감 있는 직종과 단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우리 건축사들의 생존과 자존심을 우리 스스로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화려한 말씀씨보다는 행동으로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뭉쳐 건축사로서의 긍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 끝으로 회원 외 일반 시민들이나 대외 인사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저는 우리 회원들과 광주시민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건축사로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시하며, 예술과 건축과 도시의 융합 등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설계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반 시민들과 행정가들을 비롯한 정관계인들께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2018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행인 및 편집위원 합동회의 개최

지난 6월 25일 광주 남구 입암동 식당에서... 신문 발행 관련사항 협의



합동회의 기념사진 촬영



합동회의 진행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행인과 편집위원,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해 원활한 신문 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6월 25일 광주 남구 입암동 어반브룩 식당에서 '2018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행인 및 편집위원 합동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표발행인인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을 비롯하여 공동발행인인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전북건축사회 전병갑 회장을 대신하여 박진만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자문위원인 서재형 전 편집인과 정명환 직전 편집인, 강동영 신임 편집인과 3개 시도 부편집인과 편집위원이 자리했다.

강현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창간 10주년을 향해 가는 건축문화사랑 신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를 비롯한 전남·전북 건축사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조연준 회장은 "그동안 3개 시도 편집위원들의 노력으로 타 지역 건축사회에서 발간하는 신문보다 우수한 신문이 되었다"고 격려했다.

박진만 부회장도 "본지와 같이 우수한 신문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전북도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 회의에 앞서 이번 4월 11일 자로 위촉된 강동영 신임편집인과 설혜순 전남편집위원, 정명환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도 개최됐다.

합동회의의 주요협의 내용으로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활동장려 사항과 지역별 광고 수주 계획 수립, 대한건축사협회 신문과 전국 지역신문과의 통합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활동장려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 정기총회 시 왕성한 활동의 편집위원과 더불어 학생기자에게 공동발행인 명목의 공로패가 수여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수상대상자를 1차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최종결정은 각 시도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각 시도별로 지역대학에서 우수한 활동을 하는 학생기자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광고 수주 계획 수립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월별로 하단 광고 1회, 명함광고 2회 이상은 수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신문과 전국 지역신문과의 통합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발행인 및 편집위원, 자문위원 모두 '통합 반대' 입장으로 정리하여 해당 사항이 거론될 경우 대응하기로 했으며, 건축문화사랑 신문을 대한건축사협회 임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하여 인지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그간 신임 발행인이나 편집인 위촉 시 진행되었던 발행인 및 편집위원 합동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 광주전남건축가회, 제1회 광주건축대전 시상식 오는 7월 11일 개최

오후 2시 서구 농성동 광주예총에서...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 특별강연도

GAC 제1회 광주건축대전  
2018. 7. 11(수요일)  
광주예총회관 백련전시장  
전시기간: 7월 11일~14(목)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박홍근)는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 서구 농성동 광주예총 백련전시장에서 제1회 광주건축대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제1회 광주건축대전은 그동안 광주광역시미술대전의 한 부문으로 진행되

었던 건축공모전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건축전문공모전으로 독립하여 진행한 공모전으로, 건축전공학생과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모부문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부문 등 2개 부문으로 지난 5월 공고하여 7월 4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 이후 건축대전의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유현준 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시상 작품에 대한 전시는 오는 7월 14일까지 동 장소에서 열릴 계획이다.

박홍근 회장은 "이번 광주건축대전으로 지역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이 문화적 가치로 제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시상식과 강연회에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 전남대 건축학과 동아리, JUMP의 봉사활동 행보

모금 활동에서부터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와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까지...



봉사활동 자금마련 모금활동

지난 7월 7일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동아리 JUMP에서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희망의 집짓기'는 한국해비타트에서 진행되는 국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국내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이다.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위하여 JUMP 동아리는 지난 6월 7일과 8일에 봉사활동 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모금 활동을 통해 얻은 모금액은 이번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뿐 아니라 하반기에 진행될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가구 만들기 봉사활동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JUMP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염하윤 학생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많은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배성훈 학생기자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8 디자인워크숍' 성료

지난 7월 3일 전남대에서 성과발표회 갖고 수료증 및 상장 수여식 진행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주석중)가 주최하고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이상준)가 주관하여 진행된 '2018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디자인 워크숍'이 지난 7월 3일 전

남대학교 코스모스홀에서 성과발표회를 끝으로 성료됐다.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박홍근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석훈 부회장,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배윤식 과장, 도시재생정책과 강권 과장, 북구 안전도시국 임인재 국장 등 도시 활성화에 관심 있는 내빈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디자인워크숍 성과발표회에 앞서 6월 9일 동 대학에서 개막식을 갖고 3주간 건축 관련학과 교수와 건축사,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등 60여 명이 5개 소주제에 대해 8개 팀으로 나눠 광주·전남지역의 쇠퇴하고 활성화가 필요한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건축디자인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8개 팀은 '송정1동 융복합공용주민센터로 송정1동에 산재한 공·폐가를 활용해 지역과 주민에게 필요한 융복합공용주민센터 계획'과 '광주 임동 야구마을 공·폐가 활용을 통한 동네 활성화', '광주 충효동 근린형 재생과 동네 활성화',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도시 활성화', '나주역사·문화 구도심 한옥 공폐가 재생·동네 활성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워크숍을 주관한 이상준 회장은 "2018 디자인워크숍은 광주·전남의 쇠퇴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문가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워크숍이 되었다"고 밝히며 "이 성과물들이 실무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과발표회 이후 수료증 전달식과 우수성과물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 건축사자격갱신등록 후 조달청 나라장터 '건축사 자격등록증' 제출 알림

2013년에 개정된 건축사법에 의거 당시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는 금번 5월말까지 '건축사 등록원'에 자격등록을 갱신하였던바, '조달청 나라장터'에도 '갱신 후 유효기간이 명시된 건축사자격등록증'을 발급받아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을 공지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입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건축사자격등록증 발급방법

건축사등록원 로그인 → 증명발급 → 건축사 → 증명발급 신청 및 발급

####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변경

1단계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유효기간 변경 송신 후

2단계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 '건축사자격등록증' 스캔 →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등록변경신청정보조회 및 신청취소 →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제출

※ 조달청 나라장터 변경 시 문의전화 : 해당 지역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랑에서 \_ 마흔네 번째

한마디 말

인문학 강의가 요즘 많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의 인문강좌가 있기에 몇 번 참석했다. 그 장소는 몇 년 전 공사 중일 때 방문한 적이 있는 '비움박물관'이다. 규모는 아담하지만 출발의 생각과 내용은 매우 큰 박물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박물관장인 이영화 님과 개인적 친분은 없으나 그곳을 방문해 보곤 참 대단한 분이 광주에 계신다란 느낌도 받았다.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여러 곳에 전시된 시(詩)를 봤다. 그곳 관장님의 시였다. 시인이시다. 그렇구나, 그만한 내공을 갖췄기에 이런 공간을 짓고 운영하시겠다란 생각을 했다.

여러 시중에서 <한마디 말>이라는 짧은 시가 눈에 띄었다.

지워지지 않아요  
뒹어지지도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상처로 남은  
그 말 한마디

시를 마음으로 읽으며 순간 생각에 잠겼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란 속담도 스쳐 지나갔다.

한순간, 당황한 순간, 중요한 상황에서, 잘못 나온 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말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힘들어했던가. 듣는 사람도, 말한 사람도 상처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힘들어한다.

말을 신중히 하고,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고 다짐을 하지만 다짐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내가, 내 마음이 평온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어도, 소화도 시키고, 통과도 시키고, 이해도 한다. 그러나 내 마음이 척박해 있다면 좋게 말하기도, 타인의 말을 좋게 받아들이기도 녹녹하지 않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육체의 근력도 키워야 하지만, 평온한 삶을 위해서는 마음의 근력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인문학도 배우고, 목상도 해보고, 걷기도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겠다. 듣고, 다짐하고, 실천도 해야겠다. 그리하다 보면 마음의 근력이, 생각의 근력이, 말의 근력이 튼튼해지리라 믿기에...

말에는 힘이 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천 냥 빚도 갚는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자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잘 될 겁니다.", "믿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해보자. 이를 위한 기본은 나의 마음과 생각의 발이 더욱 비옥해야 가능하다. 먼저 나의 발을 거름지게 가꾸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도 한다.

자문위원\_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법/령/소/식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개정시행 : 2018.6.15)

▶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 등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전문 인력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43조의2 신설)
  - 1)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게 함.
  -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되,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 필수 전문 인력은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함.
  - 3) 시장·군수·구청장이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별표 8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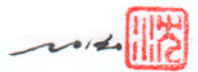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연평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신고·허가 건수,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적정 전문인력 인원의 산정기준 등 산정기준을 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열정과 패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도 조직력을 갖춘 ONE-Team을 기대합니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전담기자: 객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박종혁, 설혜순, 정영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주)씨엠엑스 350,000원
- (주)마이더스아이티 3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 원고마감 : 매달 25일
  -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E-Mail : gjkira@empal.com
  -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책 소개 \_ 홍승완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인생을 바꾸는 건축수업

김진애 저 / 다산북스 / 2012. 10. 22.

나는 처음 이 책을 읽으면서 여행을 하면서 건축에 대한 책인가 생각했다. 필자가 가본 도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주 흥미로웠다. 이 책을 읽기 이전에는 정말 유럽에 대한 동경만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필자가 알려준 도시에 정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또 어떠한 곳은 내가 가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곳인데 필자의 필력 덕분에 내가 그곳에 있는 상상을 했고, 또 정말 멋있는 곳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기도 했다.

책이란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다.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책을 읽으면서 상상과 글의 느낌을 통해서 내가 여행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면서 막혀있던 답답함을 풀어준다.

낮선 도시에서 길을 잃어보라는 주제를 던져 주셨는데 참 그 말에 공감이 간다. 나는 걸어 다니며 새로운 길을 찾으며 내 머릿속 지도를 만드는 게 재미있었는데 그러면서 내 고향인 광주의 지리를 다 아는 것만 같았다.

여러 가지 여행에 대한 팁이라기보다는 그 도시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 읽으면서도 내가 바라던, 그런 여행을 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 또 정말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히는 건축을 맛보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직 피어나는 새싹이고 마치 이 글을 읽어야 할 사람은 열심히 건축에서 일을 하며 현실에 부딪히는 사람이 읽어야 할 것만 같은 글이 되었다.

왠지 나는 건축에 빠지면서 정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묶어서 해야 할까 싶은 의문도 들었고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건축지식에 대해 잘 모르거나 좋은 부분은 기억하고 아닌 부분은 걸러내야 할 능력이 없는 어린 친구들이 읽는다면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은 책이다.

책 제목 그대로 인생을 바꾸는 건축수업에 초점을 둔 책이었고 내가 상상하던 앞부분에서 안고자 했던, 내가 바라던 자유로운 건축가는 없었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할 젊은이가 되어 있었다.

결국은 현실에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유명하고 대단한 한국 건축가들은 결국 그에 따른 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좌절과 회의감도 같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희망을 심어주는 듯한 정말 이 책을 소장해야 할 가치가 있나? 한 번 더 읽어볼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필자에게 아쉽고도 허무한 감정이 들었다.



세상사는 느낌 \_ 김영란 독자 /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여름 밤의 월드컵

6살 딸아이를 먼저 재우고 경기 1시간 전부터 주문해 놓은 치킨 한 마리와 생맥주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남편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마지막 경기 독일전을 시청했다. 평소 축구와 야구 등등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나는 이번 월드컵 또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4강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를 내었던 2002년에도 나는 그저 그랬다. 저 공 하나가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러다 남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이번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전부터 멕시코전까지도 그저 그랬다.

치맥에 눈이 멀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청하지도 않고 시청하긴 했지만 별 감흥은 없었다. 그러다 대망의 독일전. 세계 1위라는 독일팀에 주위 모든 사람들도 가망 없는 경기라고 확신하며 툭툭거렸기에 나도 별생각 없이 치맥에 집중하고 경기를 시청했다. 전반전이 끝나고, 치맥도 어느 정도 흔적이 사라지고... 평소 같으면 잠을 청하는데 텔레비전 속 우리 선수들이 신체적, 실력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맘을 뽀뽀 흘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설마 하는 기대감이 생겨 잠을 청하지 못했다.

후반전 끝이 날 때 즈음 첫 번째 골이 들어간 동시에 25층 아파트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환호성이 들렸고, 두 번째 골이 터지자 아이가 자다 놀라 방에서 나올 정도로 늦은 밤 온 동네 사람들이 흥분의 소리를 내었다.

내 가슴도 뛰었다. 오랜만의 설렘이었다.

결과적으로는 16강 진출 실패라는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세계 1위를 꺾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낸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투지와 의지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다는 현자들의 격언을 새삼 느끼며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된 이번 한여름 밤의 월드컵이었다.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메아리

신랑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나중에 서러울 날 있다고

자식들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나중에 서운할 날 있다고

부모님에게 잘 하라고  
나중에 후회할 일 있다고

인간들에게 정주지 말라고  
나중에 복잡한 일 있다고

그냥 그냥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어린애들 피듯  
날마다 피어도

반항 없는  
아내가 고맙다.

이젠, eGen을 꺼내쓰자.  
이젠, eGen을 체험하자.

COMING SOON  
문의 031 789 4119, 4183

2018년 하반기, 프로그램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건축사님들과 함께 구조기술력 향상 교육을 진행합니다.

MIDAS